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산다는건 다 그렇고 그럴게다

모 방송사에서 들려다 본 남의 집 살아 가는 이야기처럼
305호나 503호나 산다는건 다 거기가 거길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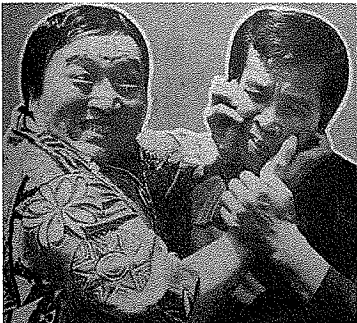
밥하기 싫어 짜장면을 시켜 먹다
남편한테 눈총도 받아 보며
산다는건 다 그렇고 그럴게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자식 문제로 혼자 앉아 가슴 치며 고민 하다
다 까먹은 수학 공식 묻는 애들 한테 무안도 당해 보고
산다는건 다 그렇고 그럴게다.

늙어 가는 부모님 생각에 마음도 아파 보고
남이 아닌 내 형제가 나보다 나은 듯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시부모 사랑이 어느 쪽에 더 기우는지 저울질 하다 남편에게 투정도 부려 보고
산다는건 다 그렇고 그럴게다.

때론 나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가정을 빗대 보며 속 쓰리기도 하고
모처럼 백화점에서 사온 옷 한벌
앞집 아줌마는 더 싸게 사온 일에 흥분도 해보며
산다는건 다 그렇고 그럴게다.

때론 혼자서의 화려한 여행도 꿈꿔 보지만
곧 나를 찾는 이성을 발휘 하기도 하고
나보다 옷 잘 입는 이웃을 부러워하다
'나보다 인간성은 아니야' 라구 나를 위로하는 것
산다는건 다 거기가 거길게다.



◀그뎨 그랬지▶ 코메디언 이기동
웃을 일이 별로 없던 시절에 작은 키에 조금은
뚱뚱한 몸으로 온 국민을 웃겼던 코메디언
'이기동'. "콩따라라따 빼약빼약, 닭다리잡
고 빼약빼약" 이란 유행어는 그의 작품이었습
니다. 그와 함께 이름 날리던 배삼룡씨는 아직
도 가끔씩 TV에서 볼 수 있지만 너무 뚱뚱한
몸에서 얻은 병탓인지 웃음만큼이나 허무함도
크게 주고 일찍 떠난 그의 희극인생에 아쉬움
이 더 크게 남아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4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11월 21일
☎369-5077/525-3858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할아버지의 믿음



한 청년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다가 한양에서 과거 대
신 외국 선교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여 기독교인이 되
어서 돌아왔습니다.

보라는 과거는 안보고 예수쟁이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부
모님이 예수믿지 말라고 핍박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
니다. 아들에게 예수 귀신불었다고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의 핍박을 견디다 못한 청년은 병어리가 되고 말았
습니다. 멀쩡한 아들 예수믿는다고 핍박하다가 병어리 만들어 놓았으니 부모의 마
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가 말만하면 네 소원 다 들어줄 테니 말만하라” 고 사정을 합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예수 믿으세요!”

이 청년은 병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병어리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토록 네 마음을 빼앗아 갔는지 어디 나도 한번 믿어보
자” 하고 예수믿어 마침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바로 신바람 박사, 아멘 박사의 주인공 황수관 박사의 할아버지입니다.
황수관 박사는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면서 나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집안
의 복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 결과 내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특권을 누리고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게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귀한 축복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
니다.

◀말아! 이런 남자친구와는 사귀지 마라(2)▶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잡고 있거나 열림 단추를 누른 채 기다려주는가 관찰
하여라.

그런 섬세함이 없다면 그와 사귀지 마라
타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섬세하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
이 너에게도 끝까지 자상할수 있음을 명심하거라.

주 일 예배

(* 표에 있어서 기 어려운 글은 양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영광송	Gloria	다 같이
성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다 같이
동서의 선언	Proclaim	인 도 자
*찬송	Hymn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인 도 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영
교회수식	Welcome & Announcements	65 (감사절 2)
특별찬양	Praising	44장
기도	Prayer	다 같이
성경독서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7: 11-19
성가대 찬양	Choir	나 무 십 자 자 성 가 대
설교	Sermon	다 같이
찬송	Hymn	다 같이
영금기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답송	Response Song	다 같이
복	Benediction	다 같이

◆ 11월의 예배위원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 11월의 교회력

일차	주일기도	원금위원	주말복사
7	장원중	영덕원	11구역
14	정덕수	권웅원	1구역
21	정희자	김경숙	청년부
28	이찬영	김경진	2구역

▶ 착한 시인을 < 음치 전사 > 송혜림

함께 부르는 찬송소리와
전혀 부조가 맞지 않지만
조리도 소리를 낮추지 않는
올바른 음표.

평 풍부하여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하는
가수들은 요즘 음과 일관로만 반복했다
가 금방 잊혀지는 가수들과는 다릅니다.
노래는 좀 못해도 은혜로 용감히 찬송하
는 것도, 주님께 인기 최고입니다. 예수
님도 그런 가창력이 있던 분이요는 분이
아닙니다.

*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 믿음대로 하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남는다
*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뵈인다

* 3주간 예배, 전교장제 이후에
음식 자료가 주어집니다
* 여학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시어야 바를 판단이 됩니다

1. 교우소식 <음복하심을 환영합니다>
* 감 목, 반혜련 전사(3선교회, 6구역). 서주, 서공
☎ 620-0309 ☐ 3 Wembley Rd. MT Eden
2. “자녀를 위한 2주 특별새벽기도회”를 마치며(8월-20일)
잠 쉼 자라며 안고 등 두드리던 손으로
이젠 힘있게 모아 기도하며
포근히 잠 들리며 안아주던 가슴으로
이제는 식지 않는 간헐함에 기도하며
나도 잘 키워한다, 잘 살아야 한다
나는 영원한 네 편이다. 나도 하나님 편이 되거라.
3. 오복은 2004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 빛 탈에 살아 거둔 것도 감사, 향가 화분에 물주며 키운 화초에도 감사입니다.
무엇보다 때로는 마음 좋이며, 때로는 대견함으로 바라 본 자녀를 한 해동안 잘
양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매일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사랑의 십전 이사람”이 가 저희 교회의 추수감사절
행금입니다
* 예배 후 Hall에서 감사절파티가 있습니다. 연기와 냉세를 피우며 고기를 구워도
괜찮도록 허물한 Hall을 주신 뜻을 이제가 알겠습니다. 감사한 주님의 선리...
4. 다음주일 “사랑의 십전 이사람”을 헌주입니다(매달 마지막 주일)
* 한 달동안 모은 우리의 Silver Coin으로 또 한달이 행복할 아이들이 있습니다
(태국, 필리핀 그리고 미국의 아동 4명)
5. 2005년 봉사자원서를 기다립니다
* 작은 모임일 편 쉼껏 교우만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곳에 여러모양으로
교우들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6. 버나드특 신학교 졸업생에게 “추수공 30개, 바람부는 Pump 30개” 보내 드립니다.
* 지난번 산골지역에 보낸 추수공 하나로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좋은 선교가 되고 있
다는 감사와 이연에도 부탁이 있습니다. 교회팀과 아랫팀 팀의 추구시합후 선생
님 이 양팀 모두 모아 고무마 찾아 주던 그해 겨울이 있었습니다.
7. 세례, 유아세례, 인교(유아세례반은 교우) 대상 교우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지극>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우, 교회출석 6개월 이상된 교우
* 구역장께서는 구역사구경 대상자에게 권면하여 주십시오

▶ 착한 시인을 < 음치 전사 > 송혜림

함께 부르는 찬송소리와
전혀 부조가 맞지 않지만
조리도 소리를 낮추지 않는
올바른 음표.

평 풍부하여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하는
가수들은 요즘 음과 일관로만 반복했다
가 금방 잊혀지는 가수들과는 다릅니다.
노래는 좀 못해도 은혜로 용감히 찬송하
는 것도, 주님께 인기 최고입니다. 예수
님도 그런 가창력이 있던 분이요는 분이
아닙니다.